

ORIGINAL ARTICLE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교사들의 인식

김진섭 · 문성배*
(부산대학교)

Middle school Teacher's Perception on 'Free Learning Semester'

Kim Jinseob · Moon Seongbae*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35, Korea)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how middle school teachers perceived major features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In 2013, the Free Learning Semester has been proposed by Korean government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educational programs which deals with various activities in classroom in order to increase student's learning ability. The Free Learning Semester helps students to figure out their dreams and develops their talents. The government plans to expand the Free Learning Semester to all middle schools by 2016. Since teacher's perception is an important matter in the application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is study seeks to document the changes in curriculum by observing the perception of teachers in the school that implemented the Free Learning Semesters and those that did not implemented the Free Learning Semesters. 172 teachers from nine middle schools in Busan that their school schedules allowed were surveyed. Two school which operated the Free Learning Semester were compared to seven schools which did not operate the Free Learning Semester.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lmost all (97.7%) teacher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schools have completed a training whereas 74.6% of the teachers in the non-Free Learning Semester schools have not. The usefulness of the training was satisfactory, but the teachers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Schools wanted more practical help with the curriculum. Second, the result, which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p<.05$), revealed that the first grade second semester of middle school was the best time to implement the Free Learning Semester. In order for its successful establishment in schools, there needs to be a reliable and effective evaluation system. However, the results regarding the introduction and management of the new system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Lastly,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Schools, the changes in teachers' percep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05$). The results show that the teachers need the training and the teacher's community to implement the curriculum and set a basis for valuation.

Key words : Free Learning Semester, teachers' perception, middle school

Received 2 March, 2015; Revised 10 April, 2015; Revised 20 April, 2015; Accepted 27 April, 2015

*Corresponding author: Moon Seong-Bae, B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daehak-ro 3beon-gil 2, Geumjeong-gu, Busan, 609-735, Korea

Phone: +82-51-510-2692

E-mail: sbmoon@pusan.ac.kr

© 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s Education .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세계 여러 나라들은 청소년들이 교과 지식에 대한 수용과 습득보다는 미래사회에 능동적인 대처를 위한 역량 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현 정부 교육정책의 중요한 의제인 학생 맞춤형 진로설계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구상 등도 이러한 맥락이다(교육부, 2013).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2013년 2학기부터 적용되고 2013~2014년 시범학교 운영 및 2016년 전국 중학교 시행이 고시되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은 여전히 운영 방안과 운영 주체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진로교육과 연계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아일랜드는 전환학년제의 ‘전환’ 대신 ‘진로탐색’ 학년제로 개인의 진로에 초점을 강조하였다(김나라 등, 2013). 현재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지만 학교의 진로교육은 기회와 다양성이 부족하고, 이론 중심 및 교실 수업 중심의 일회성의 진로교육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부족한 진로관련 정보 및 개발된 정보 및 프로그램의 활용도 미흡한 실정이다. 교사 및 진로지도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과 진로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 추진 체제도 부족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자유학기제의 올바른 정착과 진로교육의 활성화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교과통합 진로교육을 제시하였다(이지연, 2013; 김순주, 2013; 채정현, 2013). 진로탐색 활동에 초점을 맞춘 자유학기제는 2013년 9월부터 중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시범운영을 했으며, 2014년 초~2015년 말에 희망학교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2016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중학교에 도입될 계획이다(교육부, 2013). 그러나 이러한 자유학기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한 학기동안에 학생들의 내재된 끼와 꿈을 찾고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배양하는 것을 목표만큼 성취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에 의문이 제기된다. 진로교육을 뒷받침할 인프라의 부족, 자유학기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부족, 운영 주체인 교사 역할의 모호성 등으로 인한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개념에서 추구하는 ‘학생들이 스스로 끼와 꿈을 찾고, 자신의 적성과 미래에 대해 탐색하는 경험을 통해 지속적인 자기성찰 및 발전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최상덕 등, 2013). 즉 학교 진로교육이 창의 재량활동이나 단기성 행사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교과교육에 ‘진로’ 요소를 통합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요구하는 진로개발과 함께 학생 개인의 삶에 실제적 의미를 부여하여 융합, 연계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이지연, 2013). 이러한 연계성은 자유학기제 뿐만 아니라 이후 중학교 2, 3학년의 활동, 고교 진학 후 활동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이기봉 등, 2011).

자유학기제의 모델이 되는 TY(Transition Year)는 중학교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진학하기 전, 1년 동안 시험 부담 없이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체험활동 위주의 수업 방식을 통해 학생들의 인성적, 사회적, 교육적, 직업적 측면의 발달을 추구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사주도적인 학습방법과 달리 학생주도로 독립적으로 학습하는 고등학교 과정에 적응하기 위한 전환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특징은 실시 주체인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 학교에 따라 의무적 또는 선택과정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선택과정으로 운영하는 학교는 TY 참여 학생들을 별도의 반을 편성하여 참여시킨다(정진철 등, 2013). TY와 자유학기제의 차이점을 보면, 적용학교급 및 학년이 다르며 연계과목 개발보급, 코디네이터 및 4인조 팀, 연계학년 교육과정 지원서비스 등의 국가 수준 지원이 있다(아일랜드 교육부, 1993). 우리나라는 자유학기제 지원센터(KEDI) 및 협력기관 지정, 연구학교 및 희망학교 운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밖에 TY와 자유학기제의 공통점은 교과 간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김진숙, 2013a).

영국의 Gap Year는 그랜드 투어(Grand Tour)라는 고대 그리스·로마시대의 유적지 등을 돌아보며 수준 있는 소양과 지적 체험을 쌓았던 활동에 기인한다고 추정된다(Jones, 2004; King, 2011). 이후 영국 교육은 교과 외 경험을 교육과정으로 인정하였다(Simpson, 2005). 갭이어(Gap Year 또는 Year Out)는 중등교육과정의 졸업 후에서부터 대학과정 시작 전 사이의 기간을 의미한다(Jones, 2004). 영국 전역에서 3개월에서 24개월 기간으로 학생들이 공교육 체제를 벗어나 자신의 진로를 모색하며 다양한 활동, 훈련, 체험을 한다. 또한 갭이어는 학생들이 독립적이며 자신감 있는 존재로서 직업세계에서 역량을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Jones, 2004). 시기적으로 보면 갭

이어는 청소년기와 성인의 전환기, 즉 중등교육과정과 고등교육과정의 전환기에 있다(King, 2011). 이 같이 전환기에서 갭이어 활동은 학생들에게 예전과는 다른 다양한 성찰의 기회에 영향을 주며,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전 성인으로서 준비되는 기간 동안 일어나기 때문에 학생들의 생각과 사고, 삶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ones, 2004). 따라서 갭이어는 일종의 ‘전환 영역(zone of transition)’으로서 학생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생애 단계 중에서 전환기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활동으로서 간주될 수 있다(King, 2011). 갭이어는 특별히 정해진 과정이 없으며(Jones, 2013), 학생의 선택적인 활동으로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된 시간, 장소, 활동을 한다. 최근 갭이어 활동은 점차 국내외 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다양한 현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는 추세이다(Jones, 2013). 따라서 갭이어는 진로교육의 특성, 즉 개인의 내면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성찰, 미래 설계와 같은 맥락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직접적 체험 활동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정진철 등, 2013).

자유학기제는 수업의 형태와 방법의 변화를 추구하여 중학교에서 교과를 통합한 통합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궁극적인 변화를 기대한다(정광순, 2013). 미운영학교 중학교 수업 구조인 ‘1차시 45분: 1교과 구조’ 보다는 학생이 참여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기 위하여 90분 혹은 135분 등으로 블록 타임(block time)으로 조정하면 통합교과 수업의 설계와 운영을 현실화 및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형성하는 필수 3요소로 교사, 학생 및 교육과정을 말한다. 이는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지만, 그 중에서 교사는 교육의 성패를 판가름하는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전윤식, 2004). 특히 자유학기제의

성공 여부는 학생, 학부모, 교사의 교육공동체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도와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의 인식과 준비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최순화 등, 2008). 따라서 교실수업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교사가 자유학기제를 보다 정확히 숙지하면, 학생들에게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끔 능력과 융통성을 향상시켜 줄 것이다(Sternberg et al., 2003). 그러므로 자유학기제의 추진 배경과 취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운영 과정의 선택, 평가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공동체에서의 교사의 인식과 태도 변화가 자유학기제 운영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유학기제 운영에서 교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유학기제 2013년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 간의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한다. 또한 2016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 역할, 실시 시기 및 운영경험에 대한 정보공유 등에 대한 효율적인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대상

부산광역시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3개교에서 B중학교 및 지역 핵심 학교(2014년 거점학교로 명칭 변경) M중학교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로 선정하였다. 미운영학교 7개교는 2013년 2학기 또는 2014년 1학기 자유학기제를 운영하지 않고 기존 교육과정을 하는 학교이다. 이에 대한 구성 비율은 Table 1과 같다.

2. 연구 절차 및 방법

자유학기제에 대한 이해 상황 및 요구, 예상 쟁점과 실시 전후의 변동 사항 등을 탐색하기 위하여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Division	Number		Career			School type		
	Male	Female	less than 10 years	between 10 and 20 years	more than 20 years	Male	Female	Coeducation
Operated Group	9	37	14	10	22	-	-	46
Not-operated Group	33	93	29	29	68	39	69	18
Total	42	130	43	39	90	39	69	64

중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 조사 문항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계획(안)(부산시 교육청, 2014)에 반영된 사항을 중심으로 개발하여 과학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여 수정 및 보완하였다. 그리고 검사 설문지는 과학교육 전공 교수 2명과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안면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또한 미운영학교와 2013년 2학기에 운영된 연구학교를 구별하여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설문 기간은 2014년 4월 9일(수)~4월 24일(목)까지 15일간이었다. 설문 대상의 표집은 학교 일정을 고려하여 9개교에 180부를 배부하여 173부의 설문지를 직접 방문하여 회수하였으며 회수율은 96.1%였다. 이중 자료 활용에 부적합한 것을 제외한 172부를 분석하였다. 이는 부산시 교육청 171개 중학교의 5.3%에 해당된다.

설문 결과 분석은 전체적 응답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하였으며 그리고 자유학기제 시행 여부와 남녀 공학, 경력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자료 분석은 SPSS 21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III. 연구 결과 및 논의

1.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 간의 비교

1) 연수 경험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유학기제 연수경험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먼저

학교유형을 살펴보면 $\chi^2=31.573$, $p=0.00$ 으로 유의수준 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남자 중학교 교사들은 연수 미이수 69.2% 및 여자중학교 교사들은 연수 미이수 71.0%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남녀 공학의 경우에는 교사들의 연수 이수율이 70.3%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자유학기 운영학교와 비운영학교의 그룹을 살펴보면 $\chi^2=86.207$, $p=0.00$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교직경력에 따른 연수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운영학교에서 연수 이수율은 97.8%로 매우 높았다. 융합형 과학 연수 경우, 수업을 한 교사의 70% 정도가 연수를 하였지만 교육충론을 충분히 숙지하는 교사는 34.9%로 나타났다(엄희숙과 문성배, 2014). 그러나 미운영학교 연수 미이수율이 74.6%로 가장 높은 비율이므로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연수가 필요하다.

2) 연수도움

연수를 경험한 77명 교사들로부터 연수도움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자유학기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는 연수도움에서 $\chi^2=10.67$, $p=0.01$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연수가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자유학기 운영학교는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가 77.3%, ‘보통이다’ 15.9% 및 ‘그렇지않다’는 6.8%였다. 반면에 미운영학교는 ‘매우 그렇다’ 및 ‘그렇다’가 4.8%, ‘보통이다’가 48.3%, 그리고 ‘그렇지않다’는 6.9%로 나타났다. 그 외 학교유형 및 교직경력에 따른

Table 2. Experience of Training about the Free Learning Semester

Division	Demographic	Number/Percent(%)			χ^2	p
		not taken	taken	Total		
School type	Male	27(69.2)	12(30.8)	39(100.0)	31.57	.000***
	Female	49(71.0)	20(29.0)	69(100.0)		
	Coeducation	19(29.7)	45(70.3)	64(100.0)		
Teaching Career	Less than 10 years	26(61.9)	16(38.1)	42(100.0)	5.32	.958
	Between 10 and 20 years	23(57.5)	17(42.5)	40(100.0)		
	more than 20 years	45(50.0)	45(50.0)	90(100.0)		
Group	Operated	1(2.2)	45(97.8)	46(100.0)	86.21	.000***
	Not-operated	94(74.6)	32(25.4)	126(100.0)		

***p<.01

Table 3. Effect of Training about the Free Learning Semester

Group	Division	Number(N=77)					χ^2	P
		Most	Better	Average	Worse	Total		
Group	Operated	9	25	7	3	45	10.67	.010**
	Not-operated	1	13	16	2	32		

**p<.01

연수도움의 차이는 없었다. %비율에 따른 상대적인 비교를 Fig. 1에 나타내었으며 대부분 만족도는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융합형 과학 교사연수에서 만족도가 낮은 교사들은 연수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하였다(엄희숙과 문성배, 2014). 따라서 운영학교에서 연수가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전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한편, 미운영학교에서 ‘보통이다’라는 의견은 자유학기제의 운영 취지와 방향만을 연수를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연수의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에는 취지와 방법이 이해되어서 좋다고 하였으며, 연수의 만족도에서 ‘보통’이라고 한 교사들의 의견은 아래와 같다.

A교사: “방향과 취지는 좋으나 학교와 교사의 부담이 가중되는 데에 대한 조치는 없다.”

B교사: “자유학기제에 대한 계획이나 스케줄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C교사: “전 교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방법론 위주의 강의가 필요하다.”

이는 운영학교에서는 교사들은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요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전면적인 시행 전에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에 대한 차별화된 연수방법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미운영학교는 도입취지나 배경에 대한 연수와 더불어 실제 적용된 학교들의 사례를 통한 교사의 역할에 관한 부분을 강조한 연수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연수 경험과 연수를 통한 유용성에서 운영학교에서는 대부분(97.7%)의 교사가 자유학기제에 대한 연수 경험이 있었지만 미운영학교는 74.6%의 교사가 연수 경험이 없었다. 연수의 도움 여부를 보면 만족도는 높았지만 운영학교 교사들은 실질적인 부분의 정보를 제공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연수 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Fig. 1에 나

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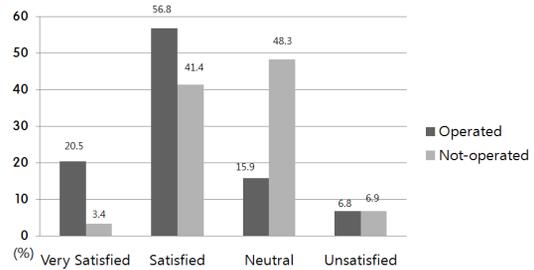


Fig. 1. Level of Satisfaction for Operation of Teachers Training System

3) 자유학기제의 바람직한 시기

자유학기제의 시기와 교직경력. 그리고 운영학교 및 미운영학교 간의 인식은 Table 4에서 보는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5). 가장 바람직한 시기는 ‘1학년 2학기’로 나타났고, 이는 교직경력 및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먼저 교직경력을 살펴보면 10년 미만과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의 경우 각각 1학년 2학기가 30.3%, 38.5%, 42.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그룹에서 살펴보면 자유학기 운영학교의 경우는 1학년 2학기가 57.8% 그리고 미운영학교는 1학년 2학기가 29.6%로 가장 많았다. 그 외 학교유형에 따른 가장 바람직한 시기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전반적으로 바람직한 시기는 운영학교 그룹이나 교직경력에서 1학년 2학기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진학 부담이 덜한 1학년과 실질적인 효과와 지속성 있는 진로교육을 위해 2학년이 좋다는 연구(최상덕 등, 2013)와 절충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처음으로 1학년 2학기가 자유학기제가 시행함으로 인한 선택적 부분의 제한으로 인한 것일 볼 수도 있다. 따라서 2014년에 2학년 1학기, 1학년 1학기를 시범 운영한 학교를 대상으로 추가적 인식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4)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장점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이 기존의 교육과정에 비하여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중복 선택한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학교 재량수업일 중 다양한 체험, 참여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하여 진로 탐색 기회 확대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유학기제 운영 취지에 맞게 학교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경력, 학교유형이나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주지 교과 즉, 국어, 영어, 수학 중심 교과목은 주입식, 암기식 수업의 시수 감축 및 토론,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의 방식을 활성화한다. 사회, 역사, 과학 교과목은 실험과 실습을 강화하여 개인 및 조별 프로젝트 학습을 강조하며, 또한 블록 타임제, 코티칭, 코러닝 등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수업 방법 도입의 중요하다고 하였다(교육부, 2013).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교육과정은 크게 ‘공통과정’과 ‘자율과정’으로 구성되어 ‘공통과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국가 교육과정에 제시된 기본 교과 수업으로 이루어진다. 단, 자유학기제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 시에는 단위 학교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기존 교과 수업 시수의 조정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교

과 수업 시수 중 일부를 조정하여 ‘자율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학교마다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2013년 2학기 연구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학교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적으로 국어, 도덕, 사회, 기술·가정의 단위수를 일부 감축하고, 이 시간을 학교마다 다양한 자율과정 운영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최상덕 등, 2013).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의 편성 및 운영의 장점이 있지만 교사들은 타 학기의 학습 비중증가와 시행이후의 학습 적응, 중간·기말고사 지필고사의 미실시로 인한 학력저하 순으로 우려하고 있었다. 이에 해당하는 응답은 다음과 같다.

교사 D: (연수를 통해) 취지와 목적을 알 수 있었다.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할 것 같다.

이러한 운영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각 학교간의 교류를 통해, 도입의 취지를 살리며 운영과정에서의 장점들을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5) 운영 모형의 선호도 및 필요한 교사 연수형태
 운영 모형의 선호도에서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조사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학교

Table 4. Appropriated Period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Division	Demographic	Number/Frequency(percent)						χ^2	p
		1-1 Semester	1-2 Semester	2-1 Semester	2-2 Semester	3-1 Semester	3-2 Semester		
School type	Male	10 (26.3)	10 (26.3)	7 (18.4)	5 (13.2)	3 (7.9)	3 (7.9)	9.63	.470
	Female	16 (23.2)	23 (33.3)	12 (17.4)	8 (11.6)	6 (8.7)	4 (5.8)		
	Coeducation	14 (22.2)	30 (47.6)	7 (11.7)	5 (7.9)	1 (1.6)	6 (9.5)		
Teaching Career	Less than 10 years	11 (25.6)	13 (30.3)	4 (9.3)	5 (11.6)	7 (16.3)	3 (6.9)	29.00	.037*
	Between 10 and 20 years	10 (25.7)	15 (38.5)	5 (12.8)	4 (10.2)	2 (5.1)	3 (7.7)		
	more than 20 years	18 (20.0)	38 (42.2)	17 (18.9)	9 (10.0)	1 (1.1)	7 (7.8)		
Group	Operated	6 (13.3)	27 (57.8)	4 (8.9)	5 (11.1)	0 (0.0)	4 (8.9)	14.80	.008*
	Not-operated	34 (27.2)	38 (29.6)	22 (17.6)	13 (10.4)	10 (8.0)	5 (7.2)		

*p<.05

Table 5. Merit of Composition & Management of Curriculum

Factor	N	Percent
① Magnification of career exploration	118	36.8
② Autonomous arrangement and management of curriculum	88	27.4
③ Increase of creative experience	49	15.3
④ Management of common, autonomous course	45	14.0
⑤ Without having mid-term or final exams.	21	6.5
Total	321	100.0

유형을 분리하여 조사한 것은 바로 진로 탐색의 체험 분야에서 남녀 구분 없이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남녀공학의 장점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자유학기제의 유형은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 및 교직 경력에 따라 선호도에서 차이가 있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유형은 첫째, 동아리 활동 중점 모형: 학생의 희망과 선호에 따른 다양한 동아리 개선 및 활동 지원, 청소년 단체 참여 및 지원으로 예를 들면, 과학 실험, 연극, 웹툰 제작, UCC 제작 등을 할 수 있다. 둘째, 예술·체육 활동 중점 모형: 예술·체육 활동(다양화, 내실화)의 강제로 전문 강사 인력 확보 및 연구학교 우선 배치로 예술 교과 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인데, 예로 무용, 국악, 디자인, 스포츠 리그 등을 할 수 있다. 셋째, 학생 선택프로그램 중점 모형: 수요자 중심 선택교과로 중·장기에 걸친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하여 주기적 조사·피드백을 하여 수요자인 학생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찾아 간접 프로그램 체험·활동형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드라마와 문화, 녹색학교 만들기 등이 있다. 넷째, 진로체험 활동 중점 모형: ‘진로와 직업’교과를 개설하여,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활용 교육을 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진로 학습’을 토대로, 학생 개인별 진로 설계를 위한 ‘진로상담·검사’ 등, 다채로운 진로체험을 실시하고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는 ‘진로탐색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다섯째, 혼합형은 진로탐색 + 예술·체육 중점 모형: 진로+예술·체육활동 위주로 학교 자율과정 편성 및 진로탐색 + 동아리활동 중점모형: 진로+동아리 위주로 학교 자율과정 편성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직 시작 단계이므로 다양한 형태의 연구학교의 진행과 사례 발표가 더 많이 공유될 필요성이 있다. Table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교사들

은 학교의 운영 결정의 주체이지만 운영모형 선택의 어려움과 운영 과정에서 경험을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선호하는 연수 형태를 조사하였더니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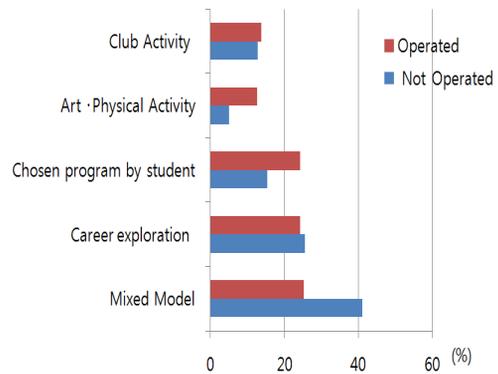


Fig. 2. Preference of Teachers Training System to Operation Model

Fig. 2와 같이 운영학교 및 미운영학교에서 자유학기제 유형의 선호도 차이가 있었다. 운영 형태에 따른 교사들의 연수형태를 살펴보면 운영학교에서는 학생 선택 프로그램형, 진로 체험 활동형과 혼합형을 비슷하게 선호하였다. 반면에 미운영학교에서는 혼합형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다. 이는 기존의 학습 형태를 유지하면서 최대한 장점을 이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통적으로 예술·체육 활동 중점 모형의 선호도는 낮았는데 이는 기존의 창의 재량 학습과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필요한 연수 형태에 대한 의미 있는 의견은 아래와 같다.

교사E: 수업 방법의 개선에 관련한 공통 자율 과정의 학습 활동, 교육과정 편성, 진로 체험 활동으로

Table 6. Preference of Operating Model

Division	Demographic	Number (N=142)					χ^2	P
		Club Activity	Art · Physical Activity	Chosen program by student	Career exploration	Mixed Model		
School type	Male	1	4	10	9	9	7.20	0.71
	Female	11	6	11	11	17		
	Coeducation	7	5	10	15	16		
Teaching Career	less than 10 years	6	5	12	5	11	24.27	0.17
	between 10 and 20 years	3	5	5	9	10		
	more than 20 years	10	5	14	20	22		
Group	Operated	5	2	6	10	16	5.14	0.40
	Not-operated	14	13	25	25	26		

나누어 세분화된 연수형태가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협력 학습, 직·간접 체험교육을 함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수·학습 방법에서 문제 해결, 토론 활성화, 실험·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강화, 블록타임제(다양한 융합·연계 수업) 등으로 협동교수·

6) 자유학기제에서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은 운영학교 및 비운영학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있었으며(p<.05), 그 결

Table 7. Role of Teacher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Division	Demographic	Number (N=172)						χ^2	P
		collaboration of subjects	Career exploration in region	Planning & Estimation	Assistance of Career teacher	Management of school register	etc.		
School type	Male	3	16	14	5	0	1	14.29	.096
	Female	12	24	30	3	0	0		
	Coeducation	8	15	37	3	1	0		
Teaching Career	less than 10 years	4	7	13	4	0	0	19.74	.546
	between 10 and 20 years	6	9	21	3	0	0		
	more than 20 years	13	33	40	3	1	0		
Group	Operated	8	11	26	0	0	1	10.40	.040*
	Not-operated	15	44	55	11	1	0		

*p<.05

Table 8. Satisfaction for Operation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Division	Demographic	Number(%)				χ^2	p
		Very Satisfied	Satisfied	Neutral	Unsatisfied		
Gender	Male	1(12.5)	6(75.0)	1(12.5)	0(0.0)	1.31	.654
	Female	6(15.8)	20(52.6)	12(31.6)	0(0.0)		
Teaching Career	less than 10 years	1(7.1)	10(71.5)	3(21.4)	0(0.0)	8.57	.316
	between 10 and 20 years	0(0.0)	5(50.0)	5(50.0)	0(0.0)		
	more than 20 years	6(27.3)	11(50.0)	5(22.7)	0(0.0)		

과는 Table 7에 나타내었다.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및 비운영학교 모두 ‘활동중심 수업 기획 및 교수 방법 평가능력강화’가 56.5% 및 34.9%로 가장 많았다.

교직경력에 따른 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에서 교사 개인의 역할보다는 협력수업 교사 팀과 같은 형태가 더 효과적이라고 여겨진다(박삼철, 2013).

2. 자유학기제 운영 학교

1) 자유학기제 실시 만족도

자유학기제 운영과 학교 만족도에서는 만족하는 편이 성 및 교직 경력에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특히하게 20년 이상의 교직 경력 교사들은 운영과정 후 매우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모든 교사들의 불만족 수치가 없었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교사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만 연수를 통하여 이러한 결과를 제공하면 긍정적으로 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2) 자유학기제의 평가과정 개발의 어려움

자유학기제의 평가과정 개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느낀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한 내용은 Table 9에서와 같이 ‘진로체험 지역 인프라의 부족’,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업무의 과부담’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p>.05$), 실시 초기 지역의 체험 인프라 구축의 확

충과 프로그램이 학교별로 다양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여겨진다.

여기서 학습형태의 변화에 따른 기준의 모호함, 생활기록부의 체계적인 기록 및 관리는 학습평가의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진로체험 지역 인프라의 부족,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업무의 과부담 및 동료들과의 분담의 모호함으로 인한 학습 효과 저해의 항목은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인지하는 어려움은 각자 다르게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교사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 TY(Transition Year) 성공의 핵심(Jeffers, 2007)이므로 교사들의 협업을 통해 전통적인 교수학습방식을 넘어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생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진다.

3) 교사들의 입장에서 느끼는 학생들의 변화

학생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Table 10에서와 같이 ‘자기 이해 및 직업세계의 이해’가 대체적으로 높게 나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p>.05$). 수업 중에 적극적 참여에 있어서 교사가 느낄 만큼의 변화는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신철균 등(2014) 보고에 의하면 학생들이 느끼는 자유학기제에 대한 만족도나 선호도는 향상된 반면, 교사가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개선 효과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았다.

Table 9. Difficulty of Estimation of the Free Learning Semester

Division	Teaching Career			χ^2	P
	Less than 10 years	Between 10 and 20 years	more than 20 years		
Uncertain Basis of Estimation	3	2	3	17.87	.176
Management of School register	0	2	2		
Insufficiency of Region Infrastructure	4	2	5		
Overwork of Making a Program	3	4	12		
Uncertain Basis of Collaboration	2	0	0		
Etc.	2	0	0		

Table 10. Change of Student from Teachers' Standpoint

Division	Teaching Career			χ^2	P
	Less than 10 years	Between 10 and 20 years	more than 20 years		
Recognition of oneself & Career	7	5	15	4.59	.849
Cooperation with Schoolmate	2	3	3		
Satisfaction of Learning & School life	4	2	4		
Positive Participation during a Class	0	0	0		
Etc.	2	0	0		

4)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 변화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의 이해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운영 전과 비교해서, 자유학기제에 대한 생각의 달라진 점에 대한 결과는 Table 11에서와 같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05$). 그러나 ‘학생들의 진로적성에 대한 인식 증가’는 앞으로 자유학기제가 학생들과 교사가 함께 인식하고 꿈과 끼를 발전시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교사들은 학생들을 이해하는 폭이 대체적으로 넓어졌으며, 공부를 잘 하는 아이에 국한되지 않고 그동안 무심했던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최상덕 등, 2014)는 연구보고와 같았다.

5) 자유학기제 실행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중복 순위)
 효과적인 자유학기제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크게 학교 내의 환경, 학교 밖의 환경, 지역사회로 나누었을 때, 나타난 요구사항을 Table 12에 나타내었다. 학교 내의 환경으로는 일반교사의 행정부담 경감 및 수업, 학생지도 중심업무 조정, 일반교사의 연수 활동중심 수업기획 및 교수학습법, 평가능력 강화, 창의적 체험활동 확대 및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알아보았다. 이 중에서 일반교사의 행정 업무의 경감을 선택하였다. 학교 밖의 환경으로는 생활 기록부 및 평가기록, 블록 타임제의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 및 보급, 교육과정을 개편하여 제도를 보완, 학교별 진로교사 배

Table 11. Change a Shift in the Free Learning Semester

Division	Teaching Career	Number (N=45)			χ^2	P
		Less than 10 years	Between 10 and 20 years	more than 20 years		
	Activation of School Organization	1	0	1		
	Necessity of Career Teaching	5	2	6		
	Recognition of Career Aptitude	7	8	14	8.18	.950
	Connection of Region Infrastructure	0	0	1		
	Etc.	1	0	0		

Table 12. Complement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Division	Teaching Career	Number (N=90)			χ^2	P
		Less than 10 years	Between 10 and 20 years	more than 20 years		
In-school	Reduction of Executive Work	8	6	13		
	Complement & Development of Teachers' Training	3	2	2		
	Reinforcement of Experience-Based Creative Activity	2	1	3		
Out of School	Management of School Register	1	0	0		
	Development of Block Time System	5	5	9	35.91	.673
	Complement of Education Course	2	1	1		
	Expansion of Career Counselor	0	0	1		
Region	Agreement of Students' Parents	2	0	1		
	Connection of Region Infrastructure	0	4	6		

치 확대를 조사하였다. 많은 교사들이 블록 타임 제에 관한 관심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상급 기관에서의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학교 간, 또는 동료 교사들 간의 정보 공유의 필요성이 제기 된다.

1994년에 아일랜드의 TY정책에 참가하는 학교 비율이 30%대로 갑자기 늘게 된 것이 예산 지원, 교육과정 고시, 교육과정의 실행지원, TY를 이수한 선배 학생들의 높은 학업성취도와 만족도 결과가 확산된 것을 뒷받침한다(김진숙, 2013b).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는 학부모의 호응과 적극적인 참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 강화를 통한 체험 시설 확보를 요구하였다. 이는 진로 탐색에 있어서 지역 인프라와 관련된 체험을 선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9개 중학교 교사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 간의 교사 인식은 연수 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5$). 또한 연수를 경험한 교사들의 운영학교와 미운영학교 간의 연수도움 여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 < .05$). 자유학기제가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에 장점을 갖고 있지만 교사 및 학부모들의 우려가 있으므로 교사들의 과부담 해소 및 학부모들의 학력저하에 염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연구학교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교육 과정의 새로운 방법을 서로 모색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융합과학의 도입 시 교사들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연수 및 관련자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윤희정 등, 2011). 특히 미운영학교는 자유학기제의 도입 배경에 대한 연수와 더불어 실제 적용된 학교들의 사례를 통한 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들의 만족도는 모든 경력에 걸쳐 만족하고 있으며 특이하게 20년 이상 경력 교사들은 매우 만족하였으며 불만족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자유학기제 평가과정 개발의 어려움, 학생들

의 선호도는 높아졌지만 교사들의 학생들의 수업 참여에 대한 인식은 아직 낮은 편이었다. 따라서 자유학기제의 만족도를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일랜드의 TY처럼,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한 수업, 학부모의 관심과 그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매우 중요하다(김진숙, 2013b).

셋째, 미운영학교들의 자유학기제에 대한 교사의 인식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학기제에 대하여 현재의 수직적인 연수보다는 연구학교들의 운영의 방향과 결과 등에 대한 수평적으로 정보의 교환이 필요하다. 특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평가 방법 및 모호함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교사의 업무 경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Busan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2013). Report 'Free Learning Semester' of Baekyang Middle School, Busan: BMOE.
- Chae, Jung-Hyun(2013). A Scheme for Free Learning Semester with Implementing Integrated Subjects Teaching.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3 2nd Career Education Forum, 52-61.
- Choi, Sang-Deok, Shin, Cheol-Kyun & Park, Kyun-Yul(2013). Implementation Strategy of Free Learning Semester. KEDI Position Paper PP 2013-01-1, 1-115.
- Choi, Sang-Deok, Lee, Sang-Eun, Kim, Byung-Chan, Park, So-Young, So, Gyung-Hee, Hong, Chang-Nam(2014) A Synthetic Report of Case Analysis for Free Learning Semester School in 2013. Seoul; KEDI, CR 2014-19, 1-183.
- Choi, Soon-Hwa, Kim, Eun-Suk, Kwon, Oh-Kyoung, Oh, Chang-Ho & Park, Kuk-Tae(2008). A Survey of the Actual Conditions of Operation and Perceptions of Science Teachers and Students Regarding the 7th Elective-Centered Curriculum of High School Science Subjects,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52(1), 96-106.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1993). Transition Year Programme, Guidelines for Schools, Dublin: Department of Education, Ireland.
- Eoum, Hee-Sook & Moon, Seong-Bae(2014). An Examination on Teache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Converged Science Introduced by the 2009 Revised High School Curriculum as well as its Actual

- Implement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arth Science Education*, 7(2), 203-213.
- Jeffers, G.(2007). *Attitudes to Transition Year. A Report to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Dublin: Department of Education, Ireland.
- Jeon, Yoon-sik(2004). *Teachers for Psychology*, Goyang: Sehyun-sa.
- Jeong Kwang-soon(2013), *Approach to Designing and Implementing Integrated Subjects Teaching in Middle School*, *Journal of Curriculum Integration* 2013, 7(3), 1-30
- Jeong, Jin-Cheol, Kim, Na-Ra & Choi, Ji-won(2013). *Narrative Inquiry of Irish Transition Year and English Gap Year as Experiential Career Education Based on Human Philosophy of Education*. *Journal of Agricultural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5(3), 85-124.
- Jones, A.(2004). *Review of gap year provision*. London: Department for Education and Skills.
- Jones, A.(2013). *Reflecting on the UK gap year: Insights for South Korea's 'Free Learning Semester'*. (pp. 45-54). 2013 2nd Career Education Forum, Seoul, KRIVET.
- Kim, Jin-Sook(2013a). *A Study of Transition Year Curriculum in Ireland*,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31(4), 165-193.
- Kim, Jin-Sook(2013b). *Comparison of Curriculums between 'Transition Year' in Ireland and 'Free Learning Semester'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mparative Education*, 23(6), 163-183.
- Kim, Na-Ra, Lee, Ji-Yeon, Jeong, Yun-Kyeong, Choi, Su-Jeong, Bang, Jae-Hyun & Choi, Ji-Won(2013).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Irish Transition Year Programme in Korea*,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26(1), 21-46.
- Kim, Soon-Ju(2013). *A Scheme for Free Learning Semester with Implementing Integrated Subjects Teaching*.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3 2nd Career Education Forum, 62-66.
- King, A.(2011). *Minding the gap? Young people's accounts of taking a Gap Year as a form of identity work in higher education*. *Journal of Youth Studies*, 14(3), 41-357.
- Lee, Ji-Yeon(2013). *A Scheme for Free Learning Semester with Implementing Integrated Subjects Teaching*. Korea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013 2nd Career Education Forum, 23-51.
- Lee, Ki-Bong, Kim, Hyun-Cheol, Yoon, Hye-Soon & Song, Min-Gyung(2011). *Development of a Community-Based Operational Model for Experience-Based Creative Activity 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11-R02, 1-157.
- Ministry of Education(2014). Retrieved October 15, 2014 from <http://freesem.moe.go.kr>.
- Ministry of Education(2013). Press Release at 28 May, 2013. (Retrieved October 15, 2014 from www.moe.go.kr.)
- Ministry of Education(2013). *Revised Making & Management of School Register*, Seoul: Daehan textbook Publishing.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2010). *Plan for Integrated Career Education*, Seoul: Daehan textbook Publishing.
- Park, Sam-Cheol(2013). *Suggestion for Korea Education from Australian IBP Project*. KEDI Current Issue Report CP2013-01-4, 1-31.
- Sternberg, R. J. & Williams, W. M. (2003) *Educational Psychology*. Seoul; Sigma Press. 280-295.
- Shin, Cheol-Gyun, Kim, Eun-Young, Hwang, Eun-Hee, Song, Gyoung-Oh, Park, Min-Jeong(2014). *A Study of Becoming Established for Free Learning Semester*, Seoul; KEDI, RR 2014-17,1-361.
- Simpson, K.(2005). *Dropping out or signing up? The professionalization of youth travel*, *Antipode*, 37(3), 447-469.
- Yoon, heo-Jeong, Yoon, Won-Jeong & Woo, Ae-Ja(2011). *High School Teachers' Perceptions of the 2009 Revised Science Curriculum and the Science Textbook*, *Journal of Research in Curriculum Instruction*, 15(3), 757-776.